

전북대 최고(最古) 동아리 '흙희' 60차 정기총회 개최

창립회원 총장 감사패 증정 · 모범회원 농생대학장 표창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는 1959년 창립돼 대학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 동아리 '흙희' (총회장 이덕배 · 농학과 79학번)가 최근 60차 정기총회를 갖고 창립회원에게 총장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북대 최고(最古) 동아리인 흙희를 창립하고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후배들을 지원해 온 흙희 1기 이기동 · 이현도 · 진영섭씨와 변무섭 지도교수에게 이남호 총장이 감사패를 증정했고, 모범적인 동아리 활동을 해온 5명의 재학생에게 농생대 학장이 표창장을 수여한다.

흙희는 매년 8월 15일이면 전국에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갖고 선배와 후배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축하 기념비도 건립했다. 기념비에는 높이 3.0m 폭 1.5m의 기념비에는 앞면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흙'이라는 대형 글자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아름다워라! 굳세라! 우뚝하라! 종달새처럼 즐겁게! 시냇물처럼 꾸준히! 해보라하지 말고 나로부터 비롯하라!'라는 흙희훈이 새겨져 있어 졸업식 등 기념시전 촬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흙희는 1959년 당시 이리(현 익산시 마동)에 있던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신입생 9명이 뜻을 모아 창립했다. '조국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청년이 되자'는 굳은 마음으로 매년 농과대학 입학생 중에서 학업과 인성에서 우수한 회원들을 선발하여 육성하면서 흙희는 나날이 발전했다.



전북대학교는 1959년 창립돼 대학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생 동아리 '흙희' (총회장 이덕배 · 농학과 79학번)가 최근 60차 정기총회를 갖고 창립회원에게 총장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어 1973년 7월 졸업생들이 모여 '흙희'를 창립했고, 매년 여름 선후배 간 삶의 경험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에도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60년의 세월 속에 융성과 쇠퇴를 거듭한 흙희는 2009년 이후 자기회생과 봉사활동이 필요한 동아리 활동에 신입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져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졸업생들이 2014년 재학생 흙희 부활에 본격 나섰다. 이들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미래 설계 이야기 등

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후배들에게 사회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신입생들을 영입하여 전북대 최고(最古, 最高)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60년 전 흙희를 창립하고 졸업이후에도 후배들을 격려하며 살아온 흙희 1기 세대의 모범적인 삶을 기리고 전북대학교와 더불어 흙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고창서, 경찰서장 주재 피해자보호 · 비위예방 집중 토론회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가 최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능별 업무처리 및 비위에 대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보호대책을 공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각종 비위사례를 중심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적극 실천하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김성재 서장은 "경찰관의 비위행위는 경찰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므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품격 있는 경찰이 되어줄 것과 피해자 보호 · 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무주경찰' 의무위반 예방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주계파출소(소장 김홍근)는 21일 오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감 받는 무주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들 간 각종 의무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 · 토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전국에서 이슈가 되는 경찰관의 의무위반사례를 살펴보고 원인과 문제점, 대책을 토론했으며 '나에게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 언행에 유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자며 직원들과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계파출소에서는 수년간 이어오는 음주운전 행위 등 자체 의무위반행위가 없는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의를 다졌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 중앙지구대, 5일장 맞이 시장 방범순찰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중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지난 20일 남원 5일장을 맞아 재래시장 방범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순찰에서는 공설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시장 내 무범지역을 파악하고 순찰노선을 지정하고 가시적 도보순찰을 실시했으며, 소매치기 등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시장은 현금으로 주 거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체감치안 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산서면, '한여름밤의 산서 마실극장' 열어

장수군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욱)에서는 농촌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최근 산서면 복지회관 앞마당에서 '한여름밤의 산서 마실극장'을 개최하여



산서 지역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 두 편과 청년경찰을 상영했다.

이 날 영화상영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지역민들과 가족들이 400여명 가량 참석해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써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장상동, 저소득 아동들에게 자전거 · 안전모 지원 사업 추진

정읍시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방상수·이상만)는 21일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16명에게 자전거와 안전모를 지원하는 '행복나눔 두바퀴사랑'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그동안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소망을 담은 희망사연을 받아 본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내장상동의 봉사단체(내장상동체육회, 내장 청년회, 의용소방대, 방범대, 농민회, 공원방범대)가 나서서 8명의 아이들을 추가 후원함으로써 훈훈함을 더 했다.

지원받은 한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를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거 같다"고 기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종 장애인 가족의 품으로 인계

정읍시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20일 수성동 소재 길거리에서 실종 된 김 씨(여,32)를 추적 ·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시에 따르면 실종 된 김 씨는 소성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나왔다가 어머니가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이 실종되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김 씨 어머니는 20일 12:40분경 정읍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로 CCTV이용하기 위한 수색요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제요원과 경찰관은 CCTV모니터링을 통해 김 씨가 수성동 소재 제일서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14:50분경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했다.

통합관제센터 팀장과 관제요원들은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읍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범죄와 사건 ·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캐мп인